

Bridge2Israel

브릿지 투 이스라엘 소식



shalom! shanah tovah!

할렐루야! 이스라엘에서 문안드립니다! 어느덧 2021년은 가고 새로운 2022년을 맞이하여 네게브 광야에서 모든 동역자님들께 새해인사와 함께 문안드립니다. 언제 지나갈까 싶었던 한 해가 너무나 빨리 지나갔고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맘쫌이는 시간과 함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도 목격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아직 우리의 곁에는 코로나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으로 인해 그나마 잠깐 주어진 자유로움이 다시금 규제와 통제로 바뀌어진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를 놓고 갑론을박을 논하기 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얼마나 더 가까워지고 우리의 예배는 얼마나 더 깊어져 가는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더 긴 시간이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에게도 삶과 예배 그리고 사역에 관한 고민을 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보냈던 4개월간의 시간과 현재의 삶에 대한 새로운 시작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다림의 시간



2016년 처음 이스라엘 땅을 밟은 후부터 저희에게 있었던 어려움 중 하는 거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묵묵히 그 시간을 기다림으로 보내면서 이 땅에 거주하기 위한 비자문제를 놓고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전의 기도편지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지금까지 학생비자로 계속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비자를 받기가 까다로운 국가 중 하나로서 학생이 아니거는 다른 비자로 거주하기란 조건도 그리고 여건도 어려웠었습니다. 학생비자도 마찬가지로 많은 재정이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었고 학비와 거주비 등 모든 재정적 어려움들은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범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수많은 동역자 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지금까지 잘 지내왔습니다. 정말이지 은혜라고 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기도 편지에 말씀 드린 대로 2021년 초반 저희는 이스라엘에 비영리 단체를 세우는 작업 중에 있었고 그 가운데 믿는 유대인 변호사 친구를 만나서 종교비자에 대한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도움으로 ‘코너스톤’이라는 기독교 단체를 만나게 되어서 그 단체를 통해서 종교비자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내에서 단체를 세우기로 맘을 먹고 일을 진행하는 가운데 단순한 비영리 단체가 아니라 종교 비영리 단체를 세울 수 있다는 말에 “브릿지투이스라엘 순복음센터”라는 명칭으로 단체 등록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등록이 쉽게 되는 것이 아니기에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 사이 “코너스톤”에서는 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저에게 종교비자 발급을 위한 도움을 줄 것인지에 대한 회의는 길어져 갔고 저희에게는 긴 기다림의 시간이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모든 답변을 듣지 못한 채 2021년 8월 17일 한국을 나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 집을 이사하고 짐을 쌓아 둔 채 코로나 상황에서 무사히 한국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에게는 아무런 답변도 없었기에 누군가가 보기에는 아무런 대책없이 한국으로 철수한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이들은 저희에게 대책없이 나온 것이 아니냐라는 질책어린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이 있었기에 저희는 아무런 말 없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다

10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찌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시편 46:10

하지만 기다림의 시간은 어려웠습니다. 만나는 분들이나 교회에서 물어보는 말에 이런저런 준비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마상 저희 손에는 답변도 그리고 확실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빈손만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놀라우신 분이셨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2주 후가 채 안되어서 ‘코너스톤’에서는 저의 종교비자를 도와주겠다고 답변이 왔고 비자 준비를 위한 서류를 보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달 후 9월 27일 새벽 저의 이메일로 한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Congratulation!”(축하합니다)란 제목의 메일이었습니다. 내용은 저희가 진행하던 단체의 등록이 무사히 마쳤고 종교법인단체로 등록이 완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내에서 당당하게 “브릿지투이스라엘 순복음센터” (Bridge to Israel Full Gospel center)라는 명칭이 이스라엘 정부에 공식 단체로서 등록되었습니다. 이제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교회 그리고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을 위한 단체로서 내부적으로 예배활동을 할 수 있고 또한 외부적으로 교회의 이스라엘 방문과 유대인들과의 만남 더 나아가 사회적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지지할 수 있는 터전이 된 것입니다. 저희가 받은 단체 등록서에는 그냥 단순한 비영리 단



“브릿지투이스라엘 “이스라엘 정부 발행 등록증

체가 아니라 기독교 비영리 단체로서 활동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물론 변호사를 통해서 일을 진행하였지만 이스라엘 정부가 안된다고 할 수 있는 일었습니다. 명칭부터 모든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부족했음에도 하나님은 순적하게 모든 일이 진행 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이를 통해서 저희는 교회와 이스라엘을 이어주고 가르치고 인도하는 사역을 해나갈 바탕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과의 사역에도 그들을 지탱해 줄 수 있는 바닥을 만들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 단체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동역하고자 하는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터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게 하신 일들을 하나씩 이루어 갈 것입니다.

아픔 속에서 기다림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

비영리법인 등록이 마친 것은 너무나 큰 일었습니다. 그리고 이 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과 동시에 저희에 대한 테스트이기도 했습니다. 등록이 마쳐진 것을 알고 기도 가운데 비자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믿음의 고백과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비자는 8월말에 답장을 받은 후 두 달가량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확신을 받은 저희는 그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었지만 다른 이들의 눈에는 대책없는 기다림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많은 이들이 저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종교비자가 안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어찌보면 매우 합리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비자는 받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저희를 후원해주는 단체도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일 뿐 확신을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안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 많은 이들이 가진 지배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으로 제1안이 안되면 다른 안을 준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일 겁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제2안이나 플랜 B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믿음으로 기도 가운데 확신을 얻었고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어리석어 보였을 것이고 아무런 대책없는 허무맹랑한 기다림이라고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반응을 보면서 저는 우리가 가진 믿음의 본질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찌보면 안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기도함으로 받은 확신을 저버리고 다른 방법을 찾아가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정한 기한과 방법에만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방법과 시간을 의지하지 못하는 믿음 없음을 보게 됩니다. 저희는 이번 비자 발급 기간의 기다림 속에서 그와 같은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하면서 더욱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가다리던 중 드디어 비자 인터뷰 날짜가 잡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불편했지만 오히려 저희에게는 큰 은혜였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비자에 대한 절차는 저희가 아니라 그 단체에서 진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절차가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저희는 그저 서류를 보내고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10월 27일 인터뷰 날짜가 잡히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인터뷰를 가지 못했다는 메일과 함께 11월달에 다시 인터뷰를 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실망스런 맘이 들었습니다. 왜 가지 못했을까? 이유도 없는 상황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곧 우리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타이밍은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더 시간을 주신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그 시간에 다른 일들을 해 낼 수 있었기에 더욱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인터뷰 날짜가 다가오던 중 다른 서류가 더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백신 유효기간이 얼마 안남아서 3차 백신을 맞고 증명서를 보내라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한국에선 아직 3차 백신에 대한 지침이 없었던 것입니다. 최대한 날짜에 맞춰서 해보겠다고 하고 보건소와 구청에 연락을 해서 겨우 백신 예약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먼저 제가 3차를 맞고 나중에 아내가 맞기로 했습니다.



호영사모가 있었던 격리시설

그런데 아뿔사! 그 사이에 그만 저희 아내 호영이가 코로나 확진을 받은 것입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인터뷰 날짜 며칠을 앞두고 그만 코로나 확진이 되어서 백신접종도 미뤄지고 인터뷰터 미뤄진 것입니다. 무엇보다 코로나에 걸려서 너무나 아프고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다행이 나아가는 시점에서 확진판정이 나오면서 격리 시설에서 열흘간 격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다시금 인터뷰 날짜를 빠르게 잡겠다고 하였고 그 사이에 격리해제가 되면 백신 접종 증명서나 완치 판정서를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열흘간은 정말 기도의 시간

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격리를 통해서 더욱 깊이 만나게 하시고 저희 나머지 가족들도 기도로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또 다른 타이밍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어렵다기 보다는 병으로 인해서 아프고 괴로운 시간이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단계로서 저희를 다루셨던 것입니다.



격리해제 후

결국 격리가 무사히 풀리고 백신 접종도 무사히 마치게 되어서 모든 서류를 잘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일 뒤 새벽, 또 다시 축하의 메시지와 함께 비자 발급 서류가 도착하였습니다. 저희는 결국 종교비자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게 하시고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종교비자는 저희는 생각하지도 못한 길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바라지만 얻기 힘든 길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를 위해서 저희는 아무런 애도 쓰지 않았습니다. 길을 찾고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순적하게 이끄시는 대로 만나게 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기다리는 시간 속에서 많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육체적으로 아팠지만 마음이 아프기도 하였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보다는 인간의 방법을 더 선호하고 기대하는 모습에서 우리의 못난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느끼셨던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대에 믿음을 요구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믿음보다 우리의 방법과 노하우를 더욱 자랑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모든 선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방법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게 일하시지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기다릴 뿐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면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무사히 비자를 받고 난 후 저희는 재빠르게 이스라엘로 귀국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준비하던 것들을 다시 정비하고 짐을 꾸렸습니다. 비자를 받았으니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었고 부족한 저희에게 많은 사랑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더이상 큰 일이 무엇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셨는데 말입니다.

출국날이 되어서 저희는 아침 일찍 공항 밴을 타고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으로 나가는 이들이 많지 않기에 출국장은 썰렁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탈 폴란드 항공 데스크는 북적거렸습니다. 대부분의 외항사들의 비행편들이 취소되는 가운데 폴란드 항공만이 운행을 하고 있기에 유럽으로 가는 많은 이들이 폴란드를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도 부랴부랴 짐을 붙이기 위해서 데스크에서 줄을 기다렸습니다.



출국 수속중 발생한 사태로 인해 다시 기다리는 중

마침내 저희 차례가 되었습니다. 수속을 하던 중 갑자기 기대하지도 않았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저희가 출국하던 12월 21일 당시 이스라엘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이전에 열려있었던 공항을 급하게 폐쇄하였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비행편과 입국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민비자(A1), 학생비자(A2)와 종교비자(A3) 그리고 가족동반 비자(A4)만 입국이 제한적으로 가능했습니다.

이미 저희는 이런 내용을 파악하고 알고 있었고 이스라엘 출입국 통제소로부터 입국 허가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에서 수속하던 중 폴란드 항공이 바르샤바에서 텔아비브로 가는 비행편에서 저희 가족에 대한 승인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알려진 것입니다. 모든 절차를 확인한 저희로서는 너무나 황당하였고 당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공항에서도 승인이 떨어지지 않으면 짐을 부칠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갑작스런 순간이었습니다.

붙이려던 짐을 모두 다시 꺼내고 한쪽 편으로 물러나서 승인이 떨어지기를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비행편 보딩시간을 다가오지만 여전히 소식은 없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가기만 하면 될 줄 알았지만 마지막 고비가 남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기다리는 시간동안 저희는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가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역사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희는 승인을 받아서 무사히 온 가족이 이스라엘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 비행기에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가족은 저희가 유일했고 그 기간동안 이스라엘에 입국한 유일한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저희에게 드라마틱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 밖에 더하시는 하나님

한국에서 이스라엘 오기까지 4개월 기간은 기다림의 연속이면서 또한 여러가지 은혜의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비자와 단체 등록 외에도 하나님은 저희에게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 중 하나는 노래를 녹음하는 것이었습니다.

호영사모는 현재 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역자가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스터디를 좀더 보강하고 단단히 하기 위한 신학적 바탕을 쌓기 위함입니다. 그 학업 가운데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노래로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음악이론을 배우는 수업 가운데 노래를 만들어서 제출하는 과제로서 유대인들을 향한 마음과 유대인들이 가지게 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곡으로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매우 부끄럽다고 하였지만 가사와 노래가 매우 진정성이 있기에 제대로 노래를 만들어 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동안 노래를 녹음하게 되었고 현재 저희 유튜브 채널에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유일한 나의 노래” 라는 곡을 찾아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B2ILFGC”를 검색해 주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55WDeFf229k>)



유일한 나의 노래 | 작사/작곡 Lina Nam(남호영)

이 곡은 예수님을 만난 유대인들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가사를 쓰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술 가운데 예수님의 아픔과 슬픔이 생명이 되고 그들에게 유일한 노래가 되었다라는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만든 곡입니다. 하나님은 진정 이 민족을 사랑하시기에 이들에게 유일한 노래가 되길 원하신다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디 이 노래가 유대인들만의 고백이 아닌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와 함께 네게브에서 시작하게 되는 브릿지투이스라엘 순복음센터(이하 B2IL)의 사역을 기념하면서 확정하고자 명패도 만들었습니다. 명패는 천우이신 오재호 목사님께서 직접 제작해 주셨습니다. 오재호 목사님은 일하는 목회자이면서 디자이너로서 활동하고 계신 너무나 멋진 분이십니다. 너무나도 아름답게 나무에 곱게 새겨진 이름은 B2IL의 시작을 기념하는 훌륭한 멋진 선물이었습니다. 먼 이스라엘에서도 목사님의 사역과 사업의 번창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밖에도 수많은 분들이 기도와 물질적 후원으로 저희를 돕고 계심에 너무나 감사

드립니다. 하나님은 더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브릿지투이스라엘 센터(네게브)

저희가 이번에 이사하게 된 네게브의 집은 이전과는 다르게 규모가 커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예배사역과 모임을 위해서 기도 가운데 얻게 된 집입니다. 네게브 광야에 맞닿아 있는 집은 규모도 클 뿐만 아니라 재정도 많은 부분이 필요한 곳입니다. 물론 저희의 재정적 상황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곳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맘을 주시고 이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예배를 먼저 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33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마태복음 6:33

저희에게 주신 마음과 확신으로 이곳으로 이전하였고 예배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게브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희에게 이 곳이 예배의 처소가 되며 이스라엘과 교회를 이어주는 사역을 위한 전초기지가 될 것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가진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기에 저희는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저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이끌리어 다녔지만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굶지도 목마르지도 않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희가 가진 것은 오직 믿음 뿐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뿐이기에 그저 믿고 따라갈 뿐입니다. 부어주시는 재정이 귀하기에 더욱 맘을 다하면서 귀한 쓰임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의 우선은 예배입니다. 하지만 그 예배는 한 곳에 앉아서 드



2층에 마련한 기도실

리는 것만이 아니라 온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예배의 자리이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예배자가 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역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헌신하고 만나고 나누고 또한 힘쓸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배의 모임이 귀하고 만나는 이들이 귀하며 외롭고 어려운 이들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이 무겁지 않은 것입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은 집과 함께 사람들을 더 하시고 계십니다. 이 곳 네게브 땅에서 드러지는 예배는 귀하고 귀하며 저희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세계각지에서 온 유학생들은 더욱 귀한 이들입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편지에서 더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편지를 마치면서

이번 편지는 무척이나 길어졌습니다. 그동안의 이야기와 함께 저희의 새로운 시작을 나누다보니 길어졌네요. 저희에게 있어서 이번은 새로운 시즌의 시작입니다. 시즌 2라고 해야 할까요? 이전까지는 이스라엘을 알아가고 적응하는 시기였다면 이제는 진짜 일하는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종교비자를 받았기에 이제 학생이 아닌 목사로서 이 땅에 서게 되었으며 예배와 말씀이 본격적인 사역이 되었습니다. 예배의 섬김과 말씀의 전함이 당당한 사역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교회로서 믿음의 공동체로서 이스라엘 땅에 예배와 종보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코로나 상황이 나아진다면 더 많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연합하게 하는 자리를 만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닐까 합니다.



저희는 오늘도 광야를 걸으면서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바라봅니다. 그저 온전히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이 곳에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그분의 일하심은 결코 멈추지도 않고 주춤하지도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는 다르게 일하시기에 때론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다면 우리도 멈추거나 주저해서는 안됩니다. 기다림은 정지가 아닙니다. 기다림은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의지나 방법들을 내려놓고 조용하게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멈추어야 하고 어떤 때는 달려야 하기도 합니다. 매달리고 간구하는 순간도 있지만 침묵하고 바라보는 시간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역사를 보고 난 이후 우리는 비로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움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에게 저희의 이야기를 나누어 주시고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그 마음을 멈추지 않으셨고 수많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 땅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메신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에 선포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만나 함께 예배하고 주의 선하심을 선포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시편 96편 3절

오늘까지 우리의 모든 여정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네게브 광야에서 김동구, 남호영 올림

기도 제목

1. 이스라엘의 코로나 상황을 위해 기도 바랍니다.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서 매일 5만에서 7만명 가량의 확진자가 나옵니다. 하루 속히 이스라엘이 코로나 변이를 잘 통제하여 다시 이 땅이 많은 이들이 찾아오는 땅이 되도록 기도 바랍니다.
2. 이스라엘의 정치적 상황과 팔레스타인의 관계가 평화로워 질 수 있도록 기도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정치가 편협해 지지 않고 팔레스타인과 함께 연합하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3. 믿는 유대인 공동체들을 위해서 기도 바랍니다. 저희가 섬기는 공동체의 연령이 높습니다. 대부분이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세대가 세워지도록 기도 바랍니다.
4. 저희가 살고 있는 미드라셋 벤구리온 마을을 위해서 기도 바랍니다. 이 곳에 세워진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이 마을에 복음이 퍼지고 믿는 이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기도 바랍니다. 예배 공동체가 이 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도 합니다.
5. 브릿지 투 이스라엘 순복음 센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예배와 기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센터가 이 곳 네게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바랍니다.
6. 사역을 위해서 함께 헌신하는 이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 바랍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이제 곧 시작하는 사역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이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7. 새로운 사역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잘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향으로 잘 세워 질 수 있도록 기도 바랍니다.
8. 재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한달 집세와 사역 등으로 사용되는 금액이 매달 5백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넉넉한 재정의 채우심으로 풍성히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헌신된 재정이 채워지길 기도합니다.
9. 하준이 예준이의 학업을 위해서 기도 바랍니다. 하준이는 이제 1년 후 바구르트라는 이스라엘 수능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시험을 잘 치워서 후에 이스라엘 대학이나 학업에 잘 진학할 수 있도록 기도 바랍니다. 예준이는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학업을 잘 유지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두 자녀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도록 기도 바랍니다.
10. 남호영 선생의 학업을 위해서 기도 바랍니다. 현재 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학문적 바탕을 잘 쌓아서 이스라엘을 이해하고 가르치는 일에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11. 김동구 선생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 바랍니다. 예배 사역과 2월 중에 참석하게 되는 멘토링 클리닉 세미나를 통해서 새로운 사역적 방향성과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바랍니다.
12. 이스라엘 네게브에서 하나님의 예배가 온전히 세워 질 수 있도록 기도 바랍니다.